여수도시공사 9월께 출범

시의회, 찬·반 논란속 설립·운영 조례안 통과

市, 자본금 50억 출자… 엑스포 관련사업 추진

찬·반 논란을 빚었던 여수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여수시의회를 통과해 오는 9월께 여수도시공사가 출범한다.

여수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찬성 15, 반대 3,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공사 정원은 37명으로, 올해 직원 23명을 신규 채용하거나 공무원을 파견 받기로 했다.

도시공사 자본금 50억원은 모두 시에서 출자하며, 공사 사장은 추천위원회(시장 추천 4명.의회 추천 3명 등 총 7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오현섭 시장은 "여수시가 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등에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세계박람회 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시공사를 반드시 흑자로 운영하겠으며, 시민들도 성원해 달라"고 말했다.

오시장은 "여수시 전역을 박람회 사이트로 개발해 볼거리와 놀거리, 쓸거리를 만들어야 하나 기반시설 부족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도시공사는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부지 제공 등 2012 세계박람회를 지역발전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도시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여수시가 유일하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장애아동 국토순례

순천지역 장애아동 16명과 일반아동 5명, 자원봉사자 16명, 인솔교사 8명으로 구성된 45명의 국토순례단이 지난 24일 순천시청에서 발대식을 갖고 다음달 7일까지 14박15일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이들은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에서 매일 22㎞가량 280㎞를 걸어서 순천으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다. 순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천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여수 엑스포 정부 지원단 27일 방문… 추진 현황 점검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 부처별 담당자들이 27일 여수 현지를 방문한다. 이들은 박람회장 부지와 SOC사업 현장, 오동도,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등을 차례로 들러 추진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여수시는 부처별 담당자들에게 SOC 확충을 위한 조속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시내도로 등 교통망 확충, 도시경관 정비, 연안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국고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26일 오후에는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에서 조직위원회 관계자와 여수시 관련 부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여수세계박람회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실무회의'가 열린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여수 119수상구조대 발대식

피서철을 앞두고 여수 119수상구조대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여수소방서(서장 강대중)는 25일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수난구조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9 수상구조대 발대식을 가졌다.

119 수상구조대는 오는 8월 24일까지 2개월간 만성리를 비롯해 신덕·방죽포 해수욕장 등 6개소에서 구명보트와 구급차 등을 갖추고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수상안전교육, 미아보호, 주변 관광지 안내 등을 실시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光州日報 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본부장	김동호	
	지광현 차장(보성)	
고흥주재	주각중 부국장	
여수주재	박양규 부장	
순천주재	김진수 차장	
광양주재	김춘호 차장	

순천대 공과대학 광양캠퍼스 후보지

광양시, 중마동 시유지 무상 제공 검토

순천대 공과대학 광양캠퍼스 후보지로 중마동 일대가 거론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25일 "순천대 측이 중마동 일대 시유지의 무상 제공을 원하고 있고, 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마동 일대 시유지는 약 10만㎡로, 광양시는 시유지 전체 또는 일부를 순천대 측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대는 시유지를 제공받은 직후 건물을 신축해 오는 2010년 신입생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순천대는 3~4개 학과를 신설해 학생 400~500명이 수강할 수 있는 대학원 중심의 공대학과인 가칭 '글로벌 특성화 공과대학 광양캠퍼스'를 설립하고, 교수 30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순천에 전남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문광부 공모 사업 선정

20억 투입… 내년 8월 개관

순천에 전남영상미디어센터가 들어선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09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사업지'에 순천시와 경기 부천, 강원 강릉 등 3곳이 선정됐다.

순천시 연향동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 들어서는 '전남영상미디어센터'는 국비와 지방비 등 20여억원을 들여 각종 첨단영상장비를 갖춰 내년 8월 설립된다.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빌려주고 각종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시설과 영상미디어 교육도 제공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학교 영화교육사업과도 연계해 학생들에게 방송·영화 제작실습 기회도 줄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

올 여름 피서 보성으로 오세요

율포해수욕장·녹차타운 내달 4일 개장

남해의 청정해역에 위치한 보성군 율포 해수욕장과 '해수 녹차 휴양타운'이 오는 7월 4일 개장한다.

다음달 4일부터 8월 24일(52일)까지 개장하게 될 율포 해수욕장은 지난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아름다운 어촌으로 선정된 율포 해변에 위치하고 있다.

또 인근에 있는 해수풀장 및 파도풀장은 보성군이 직접 경영하는 시설로 지하 120m에서 용출되는 심해수의 맑고 청정한 물을 사용하며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어 매년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해수·녹차탕도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보성의 명물로 각광 받고 있다.

이용문의 해수·녹차탕(061- 853-4566) 해수풀장(061-853-4243)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순천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34년만에 통합

장천동 종합터미널로 7월 중순부터 운영

순천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34년 만에 통합돼 7월 중순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순천시는 지난 24일 금호터미널(주), (주)천일고속과 간담회를 갖고, 매곡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을 장천동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장 내로 통합 이전키로 최종 협의했다.

통합 터미널 명칭은 '순천종합버스터미널'로 확정됐으며 인가 승인이 나는대로 7월 중순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기존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는 순천시가 매입해 시민들의 휴식처로 탈바꿈된다.

고속과 시외버스터미널이 통합되면 30년 이상 노후됐던 고속버스터미널 이용 승객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시외버스 이용 시민들도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한편 순천시는 장천동 통합 터미널 진입로 부지 100㎡를 매입해 버스 진입로를 확장하고 인도 신설을 추진한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